

## Lectio Divina (거룩한 독서)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 1. 읽기(Lectio) - 마태 10,26-33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을 <sup>26</sup>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사람들의 시선과 반대 때문에 침묵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 “숨겨진 것은 드러난다”는 말씀은 하느님의 진리가 결국 밝혀진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복음이 작고 약해 보이고, 제자들이 박해를 받는 것처럼 보여도, 하느님의 뜻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sup>27</sup>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가르쳐 주신 말씀은 이제 세상 앞에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지붕 위”는 당시 팔레스티나 집의 평평한 옥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입니다. 복음은 숨겨 두는 지식이 아니라 선포되어야 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제자는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과 말로 드러내야 합니다.

<sup>28</sup>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 예수님께서서는 두려움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사람은 육신을 해칠 수는 있지만, 인간의 영혼과 영원한 생명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공포에 사로잡히라는 뜻이 아니라, 하느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라는 뜻입니다. 참된 경외심은 사람의 평가보다 하느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29** 참새 두 마리가 한 뿔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30**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 **31**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 참새는 당시 매우 값싼 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 작은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고 하십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막연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알고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두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께 귀한 자녀**입니다.

**32**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33**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 **복음의 결론은 증언**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선택, 말, 관계, 용서,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박해 앞에서 신앙을 숨기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복음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 2. 묵상(Meditatio) - 성찰 질문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 선포의 가장 큰 장애물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하느님의 사랑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를 버려두실 리 없습니다. 따라서 신앙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하느님을 더 신뢰하는 삶**입니다.

### 질문

1. 무엇 때문에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2. 사람의 평가와 하느님의 뜻 중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3.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4. 오늘 예수님을 증언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5. 복음을 숨기고 있습니까, 선포하고 있습니까?

### 3. 기도(Oratio) - 자유 기도 예시

주님, 저희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말해야 할 자리에서 침묵하고,  
신앙인답게 살아야 할 순간에 물러섭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아버지께서  
저희를 잊지 않으심을 믿게 하소서.

저희의 머리카락까지 세어 두시는  
당신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먼저 찾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4. 관상(Contemplatio) - 하느님 안에 머무르기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 말씀을 반복하여 마음에 담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 조용히 머뭍니다.

### 5. 실천(Actio) - 삶 속에서의 결심

1. 두려움 말하기 - 오늘 가장 걱정되는 일 하나를 주님께 말씀드리기.

2. 신앙 고백하기 - 성호경을 천천히 긋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

### 3. 작은 증언 실천하기

가정, 직장, 본당에서 신앙인답게 행동할 수 있는 작은 선택 한 가지 실천하기  
(예: 정직하게 말하기, 먼저 용서하기, 감사 표현하기).